



이중언어의 속사정

언젠가 아이들을 훈육하다가 무심코 "Stop it!" 이라고 소리친 적이 있다. 같은 상황에서 "그만해"라고 말했을 때와는 뉘앙스가 달라진다. 영어는 순간을 날카롭게 끊어내는 칼 같고, 한국어는 말끝에 여운이 남아 마음을 흔드는 종소리 같았다. 두 언어는 내 안에서 늘 충돌하고 협력하면서, 때로는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나는 두 언어를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안고 살지만, 동시에 어느 쪽에서도 온전히 안착하지 못한 채 떠 있는 사람처럼 살아왔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무렵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교까지 마쳤다. 그리고 결혼과 육아를 지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어느덧 8년째 살고 있다. 내 삶은 한국어와 영어가 교차하며 그려진 궤적 위에 놓여 있다. 이민 초기에는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주고받는 농담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뚱히 앉아 있던 기억이 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한국어로 이야기했지만, 그 한국어는 이미 어딘가 낯설어져 있었다. 미국 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서툴게 몸에 붙는 동안, 집에서 쓰는 한국어는 점점 짧고 투박해졌다. 학교에서는 영어, 집에서는 한국어,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완전히 편안하지 않았다. 언어의 틈바구니에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 틈바구니에서 나는 종종 언어가 세계를 나누는 방식을 실감했다. 같은 사물과 감정을 가리키면서도 두 언어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했다. 색 하나만 봐도 그렇다. 영어에서 yellow는 그저 노란색이다. 조금 더 세밀히 구분하려면 light, dark, pale 같은 수식을 붙인다. 그러나 한국어의 노랑은 훨씬 다채롭다.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셋노랗다. 같은 노란색이라도 상황과 질감, 분위기에 따라 다른 단어를 고를 수 있다. 셋노란 병아리와 누리끼리한 종이는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언어 하나가 세계를 바라보는 감각을 이렇게 달라지게 한다.

감정의 언어도 그렇다. 영어의 "I'm sorry"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다. 누군가 가족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병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 "I'm sorry"라고 말하면 그 안에 공감과 위로가 담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미안해"는 거의 언제나 내가 잘못했을 때 쓰인다. 같은 상황에서 "미안해"라고 말하면 오히려 어색하거나 무례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안타깝다" 혹은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을 꺼낸다. 단어 하나가 담는 문화의 결이 이렇게 다르다.

이렇듯 두 언어는 쓰임새도 다르고 전달되는 뉘앙스도 달라서, 어떤 순간에는 영어가 더 자연스럽게, 또 어떤 순간에는 한국어가 더 편안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부터 두 언어 사이에서 작은 실험을 하곤 했다. 감정을 꺼낼 때는 영어가 훨씬 자유롭고, 무언가를 묘사할 때는 한국어가 더 풍부하고 매끄럽게 느껴졌다.

예를 들어 분노나 애정, 사랑 같은 감정을 고백할 때 영어는 털 무겁다. "I love you"는 일상적인 말이다. "사랑해"라고 말하려면 훨씬 큰 결심이 필요하다. "I'm mad"라고 하면 급세 감정이 터져 나오지만, "화났다"라고 하면 더 단단하고 불가역적인 감정처럼 들린다.

반대로 무언가를 묘사하거나 설명할 때는 한국어가 훨씬 세밀하다. 비를 예로 들어보자. 영어에도 It's drizzling이나 It's pouring처럼 비의 양과 세기를 표현하는 다양한 말이 있다. 그러나 한국어는 거기에 소리와 모양까지 덧입힌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주룩주룩' 떨어지고, '퍼붓는다'고 말할 때, 단순히 양과 세기를 넘어 비의 질감과 소리까지 귀에 전해진다. 같은 현상을 묘사해도 언어가 끌어내는 감각은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영어는 감정의 언어이고, 한국어는 묘사의 언어다.

이제 나는 아이들과 함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아이들도 곧 나처럼 언어의 경계에서 불편함과 답답함, 때로는 서러움을 겪을 것이다. 영어로는 쉽게 말할 수 있는데 한국어로는 무겁게만 들리고, 한국어로는 풍성하게 묘사되는데 영어로는 건조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 혼

란과 곤란을 대신 짊어져 줄 수는 없다. 다만 나는 안다. 언어의 무게는 처음엔 짐이 되지만, 시간이 쌓이면 결국 자기만의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것을.

언어가 언제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진 못한다. 때로는 어느 쪽에도 없는 단어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공백을 견디는 힘이 결국 우리를 더 깊게 만든다. 나는 여전히 두 언어 사이에서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배웠다. 언젠가 아이들도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두 언어의 틈새에서, 불편함과 풍요로움 사이를 오가며 살아갈 것이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각종 디스크 및 협착증세 치료 최고 권위 전문의!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 UC Irvine
 LA 척추신경의대
 CA척추신경보드 전문의
 CA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1년

디스크 협착증 증세로 고통 받는 분들이 수술 않고, 통증 없는 치료 후 기적 같으며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목 · 허리 디스크 탈출증 / 좌골신경통 / 퇴행성 디스크 / 척추관협착증 / 만성요통
 * 각종보험 및 메디케어 환영 (HMO Group : SMG, CENTER 환영)

-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머리** 두통/어지럼증/안면마비증세
 - 목** 목 디스크 (팔과 손가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굳거나 빠진 통증 / 어깨가 안돌아가는 증상 (Frozen Shoulder) / 오십견 / 견비통
 - 등** 척추측만증 (Scoliosis) 특수교정 (특히 초등학교 때 조기 검진 중요)
 -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 (엉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 / 퇴행성 관절염 / 요통 / 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 / Tennis Elbow / 손목 / Carpal Tunnel Syndrome / 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신경통 (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 / 무릎통증 / 발목통증 / 변증상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및
각종 일반 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 31년의 풍부한 임상경험
 • 흉내 낼 수 없는 풍부한 의학 지식
 • DRX 9000 (최첨단 디스크 감압치료기)
 위에 3가지가 모두 함께 공존하며
윤동준 원장이 직접 정성으로 치료하기에,
 정확한 진단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성공률의 각종
 디스크 치료의 "최고 권위 전문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Lampson Ave	
Brookhurst St	Yoon Chiropractic	Euclid
	Garden Grove St	
	22 Fwy	

윤동준 척추신경 병원 714.539.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